朝鮮日報

夕刊朝刊合六面

社說

東西婦人의 好對照

一

日本의 議會도 매우 擾亂하지마는 獨逸의 議會도 近來에 와서는 擾亂하기로 有名하다 戰前에 잇서서 日本은 獨逸을 따러가려고 못처에 費心햇섯다 그리하야 類似한 點이 이 兩國間에 만히 잇섯다 新興國으로 하야 不幾에 世界에 頭角을 나타내게 한 點에 잇서 强大한 陸軍을 包擁하고 잇는 點에 잇…

洋에서 先進國이라는 日本에 잇서서도 아즉 婦人의 參政權이라는 것은 問題도 되지 안는 터이며 西洋에서는 婦人이 積極的으로 政治에 參加하게 된 나라가 만코 더구나 獨逸과 露西亞에 잇서서는 婦人이 男子와 全然 同等된 地位에 잇게 되엿다 東洋의 婦人은 더만히 積極的으로 活動할 必要가 잇다

獨逸前首相長逝

獨逸民衆政治의 闘士

(「나우엔」二十六日發) 前獨逸首相이오 中央黨首領인 「곤스태친、훼레、팍파」氏는 曾往부터 疾病으로 오래동안 病床에 누엇던 바 遂히 七十四歲로 「푸라이부르크」市에서 長逝하엿는데 獨逸議會는 半旗를 揭揚하야 弔意를 表하엿다 氏는 革命直後 『와이말』 國民議會 議長에 選擧되야 「칸프」爭鬪後 首相이 되엿는데 氏는 高潔한 人格者요 民衆政治를 爲한 頑强한 鬪士로서 自黨뿐만 아니라 反對黨에게도 尊敬을 바덧다 더라

京南線路豫定 安城市民反對運動

訪日飛機二臺

駐墨米大使辭任乎

大統領立候補

段祺瑞氏는 日本租界로 避難

日本代表決定發表

政府、資本、勞働各代表

罷業資金五萬留

廣東對英罷業團에 送致

赤露로부터

更新聯盟

覺書附議

慶南大會

漁組總代再選

組合員反對로 流産

人權蹂躪이라고 大憤慨

義城幼稚園

湖成學校曙光

大救面民또恐慌

田中包林貸付問題로

巨文島에 紅疫

漁場問題

不遠解決乎

咸與商民이 反對

成平에 兩校新設

安岳의 中等教育

東海沿鐵期成會

二十三日에 創立

陽郡에서 朝鮮東海岸線鐵道期成準備會를 開催하엿다 함은 이미 報道한 바어니와 三月二十二日 陽公立普通學校 構內에서 創立會가 開催되엿다는데 出席員이 百餘名에 達하얏고 決議事項과 任員氏名은 如左

◇決議事項

總督府當局에 陳情書提出할 것

◇任員氏名

長秋場順一郎 副會長 金炳游 議員 金東澤 金毅澤 金兩奎

驅逐艦四隻新浦着

二十五日 正午十二時頃되야 咸南新浦港에 驅逐隊軍艦四隻이 入港하엿는데 드른바에 依하면 警備訓練하기 爲하야 本月十八日 日本에서 出發하야 朝鮮東海岸을 巡航한다 는바 鬱陵島、雄基、淸津、城津으로부터 當地新浦港에 碇泊하엿다가 南湖津、元山、長箭을 向하야 廿六日 午前十時에 出發하엿더라 (新浦)

龜尾衡平社創立

旣報=慶北龜尾衡平靑年創立總會는 去二十四日 同分社內에서 開催되엿는데 臨時議長 康寵氏의 司會下에 會則通過와 各處에서 來到한 祝電祝文을 朗讀한 後 午後八時頃에 閉會하엿는데 決議事項과 選定된 委員은 如左하다 더라

一、衡陽事件에 關한 調査의 件

一、靑總加盟의 件

◇執行委員

庶務部 裵雲龍 康寵 敎養部 趙

海蔘鰊魚高價

今年의 海蔘威鰊相場은 漁場의 買用價格 一䭾 五十圓임으로 昨年 四十圓에 比하야 十圓이 高價임을 조차 元山에 廻着價格도 高價를 唱할 것은 勿論이고 第一着船의 入荷品은 一䭾 五十六圓 第二着船의 入荷品은 一䭾 六十八圓으로 取引되엿다는데 本年의 海蔘鰊은 大體로 보면 昨年보다 漁獲이 多量한 것은 事實이나 相場의 高價理由는 本月二十五日까지 限하야 先買契約을 하는 까닭이라 더라 (元山)

◇開城衡平分社例會 開城衡平分社에서는 二十二日 同社舘內에서 月例會를 開催하고 財政整理問…

◇大邱聯合都査經會 大邱府內에 잇는 新町、南山、南城、中央、七星町(長老派) 五敎會에서는 三月二十九日부터 一週間 聯合都査經會를 開催한다는데 平壤 吉善宙 牧師를 請邀하야 每夜에 傳道講演까지 한다고 (大邱)

◇寸鐵◇

【裡里】 孔德面 黃山里 某農場舍音某는 小作料를 高利私債로 除하고 남어지 한 푼 바들 수 업는 쎄에는 族徵을 식힌다나! 舍音질이 아니라 詐欺질인가?

◇

【義城】 所謂 普天敎 正敎部는 今月부터 朔望致誠祭도 못하고 幹…

今般 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엿사오니 僉位는 以此照亮하소서

總務兼 記者 金正雨
記者 朴箕煥

朝鮮日報 廣州支局 白

今般 本支局에서 左와 如히 局員을 任用하야 參禮里에 駐在케 하엿사오니 愛讀諸位는 以此照亮하소서

記者 李儒

朝鮮日報 全州支局 白

本報 三月二十六日 朝刊 一面 社告欄中 本支局 記者 千冀鎬의 誤植이 옵기 玆에 訂正함

朝鮮日報 高敞支局 白

The Korea Daily News.

Seoul, Korea, Sunday, Mar. 28th, 1926.

THE MANAGING EDITOR

The Japen Christian Intelligencer

IV

He associated himself with Filipincs, Chinese, Indians, and Koreans tinged with revolutionary ideas and once thought of going to Manila to die fighting for the cause of Filipino independence. He picked up quarrels with many of his former class-mates and even fell cut with his brother. In fact, he was desperate and was heading straight towards ruin.

At this critical time, salvation came to him first in the form of an invitation from Mr. S. Kuroiwa, Editor of the *Yorodzu Choho*, to join his staff. He was told by a mutual friend, who had spoken of him to Mr. Kuroiwa, that he (Mr. Kuroiwa) said that a man who was so bad as to be expelled from school might make a good journalist. This pleased his vanity immensely and made him think that here was a man who really understood him and appreciated his ability. Forthwith he enterd the service of the *Yorodzu Choho* and became an assistant editor of its English columns. In those days the *Yorodzu* was considered the yellowest of yellow papers, so his entry into its service was regarded by all who knew him to be the climax of his degradation. And really he was in his darkest hour. As a radical he was a marked man and so wild was his life that he scarcely slept under his maternal roof."

英文欄

山縣五十雄氏의 自叙 (四)

鳩山의未墾地開拓과 疑心되는慶興의將來

토광인회한곳에거정업시지낸그들에게 일인의미간디착수는과연놀랠소식이다 作農同胞는方今戰戰兢兢하는中

종래 북도디방은 긔후가따뜻지못한관계로 인구가그리 조밀치못함을따다 토광인회(土廣人稀)한덕택으로아직까지 소작인(小作人)이라고는 거림자도 볼수업고 대개농사를 자작하야일반농민의 생활정도도 남도디방에비하야는 비교뎍 안뎡되얏다함만한까닭에 다른곳에서 떠드는소작 문뎨이니 농민참상이니하는소리를 피안의화사시(彼岸火事視)격으로드르며 일반농민들은평화한살님가운데서세월을보내든중이던바 뜻밧게 마의손길이 장차혼이북도농민에게까지미치어서걱지안은불안에싸엿는바그는대의사(代議士)구산모(鳩山某)라는사람이 작년봄에이곳에 와슬배에경흥군노서면(慶興郡蘆西面)에잇는 미간디(未墾地)를대부하야가지고 일대농장(一大農場)을 만들려는계획이잇든바 요사이에일으러 그계획이구톄화한 모양으로밟서 로서면에잇는 미간디가 일천사백여뎡보나구산의손에 들어갓다 하며또한구산은 구십만원이라는 큰자금을던저 이광활한 미간디를개척하려고 지금 착착그준비를진행중이라는데 권력을 아울러 가지이 큰자본벌이이곳에 손을퍼는날에는미약한그디방농민은그에 대항할힘이업서 자연도태(自然淘汰)의비참한경우에일을것은명우나명백함으로그디방농민들은 지금부터 전전긍긍중에잇다더라(웅긔)

京城少年會에 解散命令

종로경찰서로부터

시내 수은동(授恩洞) 일백사십번디에 림시회관을둔 경성소년회(京城少年會)는 지난 이월에창립된후 회원이 벌서사십여명에달하야 장차 소년운동에용맹이차울 투사(鬪士)를길우던바 지난십팔일에 돌연히종로경찰서에서동회의가부김병건(金炳建)을불러 해산(解散)을명하엿슴으로 동회에서는 간부김병건(金炳建)군을 파견하야다시경찰서에 교섭하여보초강령이 불온하니까 절대해산한다고 해정(解停)은절대로 안된다고하는바 이일은 어린소년들의새싹을 근본부터 꺽는것이라하야 세간의주목이 대단하다더라

農軍이作黨하야 衡平社員을襲擊

형평사원은도적놈이라고

지난이십일날경남마산선(馬山線) 덕산(德山)에서사십여명의농군이 야반에 형평사원두명을습격하야 일시큰소동을 이르킨일이 잇는데 그자세한내막을알어보면 습격을당한사람은 마산부석뎡(馬山府石町)리삼팔(李三八)(二九)로 그의동서되는박창언(朴三彦)(三六)의 집에 볼일이잇서서 덕산까지갓는데 그때마침가튼사원박도세(朴道世)(二二)를 맛나자박도세는 덕산역압에서돈도업시 떡십전어치를 먹고 떡장사와말다툼을 하는것을 리삼팔이가 대신갑흔것을동리죽동면(東面)권면장 리규석(李圭碩)이가 그것을 분개하야 술이만취한얼골로 이놈들백정놈은 모다도적놈이다 하며 것헤잇든 자에게명하야 저놈늘을 삭기로쇠묵거서 두놈이라하야 주먹으로、리삼팔과 박도세를따려、상처를나게하고 그곳순사주재소의철유까지들은 권면장리규석은 그날밤두시경에 그동리농군을 선동하야 권과와가티 습격을하게하야 리삼팔은치료약삽주일을 요케되여 불일고소를 데긔할터이라는데 이급보를드른 마산창원의 두형평사(馬山昌原衡平社)에서는긴급회

順天梅山女學校 當局者聲討演說

警察干涉으로延期 소위검지한다는그리유는 당치안은두가지리유이다

전남순텬군(全南順天郡) 매산녀학교 (梅山女學校)의 미인선교사(米人宣教師)가 됴선인의 악표본(惡標本)을만드러 미국에수출한것을 발견한 순텬각단데에서 극도로분개하야 여러차례각단데대표회를열고 그대책을강구하야 이십칠일에는 청토강연(聲討講演)을하기로결뎡되엿다함은 본보에 누보한바 어니와결뎡되는날부터 순텬경찰은 공연히겁을내여성토에대한준비를비상히감시하는모양이더니지난이십삼일에동대표들이성토강연『세라』를인쇄(印刷)차투원고를작성하여가지고준비에분망하는중동동준비위원을 다려다가 원고인쇄를검지하면서보안법데사조(保安法第四條)에해당한일이니 선동시키는것으로간주하는동시에 안녕질서를 문란케하는자로 인뎡치아니할수업스니아라조심하라함으로 그주의를들은 준비위원는 곳도라와 각대표에게보고한결과 각대표는 다시이십사일오후팔시에 순텬농민 련합회관(順天農民聯合會館)에모히여서이에대한 대책을 연구할새림시의장(臨時議長)리창수 (李昌洙)씨사회하에 무한한토의가잇섯스며 억압을당한 각대표는극도로흥분되여 아래와가튼 결의(決議)를하고 오후열시에 폐회하엿다더라(순텬)

決議

一、米人宣教師의惡行聲討演說은警察의干涉이이와가티苛酷하

二百餘勞働者가 慘死貧婦厚葬

장사를지내이고서표창은 경찰서에가서여가지질문 問題의田中一家는避難

전남보성(寶城)읍내일본인뎐중서칠(田中善七)이 가이웃집개를먹여 죽일랑으도 일본뎍속에쥐삽는약을너서 그집문ㅅ간에 노

開城에阿片犯

生徒側讓步로 五山校紛糾解決

생도들이자긔네가취한태도의그릇됨을깨다러

오해로일시 분규가잇는속히 등교케하여달라는 보내여 지난이십삼일에 동은 오해된것을깨닷고 동에 주동하던 오륙명이 외에 권부 무조건으로원 해결를지어 이십삼일부터 시험을시행중이라더라 (뎡주)

在日朝鮮勞總 關東聯合會創立

여러가지사항을통과한후 원만히서회를폐회하엿다

龜城에火災

赤星勞組 東京서創立

備品만當하면

입학을시키겟다는 대동보교당국자의 怪異한言明

지난이십일 평남대동군 추을미면(大同郡秋乙美面)에잇는대동공립보통학교(大同公立普校)에서는데오학년보결생입학시험을거행하엿는데 지원자 삽십오명중에서 여덟명을 선발한후 남아잇는 학생의 부형에게대하야 학교당국으로부터 말하기를 학교에 비품이부족하니 부족금만 담부하여준다면 입학케하여주겟다고 하엿다는데 이말을들은 학부형들은 학교당국의 그말을 비난한다더라(평양)

데인 적성노동조합(赤星勞働組合)을 창립코자일개월이상을두고 리광춘(李光春)씨외 제씨가활동중이든바 지난이십일 하오일곱시부터동경시내 심천구(深川區)신동뎡(新東亭)에서 창립총회를열엇는데김삼봉(金三峰)씨의사회로 재동경각우의 단데대표와개인의축사가잇슨후규약(規約)과 건의안(建議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임원는아래와가티 선뎡되엿는데 당일은마츰큰눈(大雪)이 왓스도 불구하고 백여명의 회원이모히여 성황을이루엇다더라(동경특신)

▲委員長金三峰 ▲中央委員 金炯珍 李光春 劉鉉李 春雨 金相鎬 洞一 李召波

大邱市內見學團

◇……極盛況裡에終了 늦김과깨다름이만햇스며 진진한추첨여홍도잇섯다

당국자또는일본인측으로는엇더한수단을취하엿겟느냐?

一、가해자면중의 가족을 묘처(留置)치안코 자유방임 하야모다피신케한일은원일인가?

一、사실취조함에에가해자인일거케하여출됨

본사람은 의자에안처고 피해자잇중인인 조선사람은 병에안진일은엇더한까닭이냐?

一、사망자의유족에게상당한위자료(慰藉料)를 지불케하여줄일

一、군중가족은보성디방에서쫏차거케하여줄일

긔보= 본보대구지국에서 독자를위하야 시내견학단(市內見學團)을조직한후 만원으로특별히 사십명의 단원을 증모(增募)하얏다함은 이미보도한바 어니와 지난이십육일 오전구시 삼십분에 집합장(集合場)인 연초전매지국(煙草專賣支局)압헤는사백이십명의 만흔견학단이 모혀드러 교통상불편을 이르킬만콤장관을 이루엇섯는데 실로대구초유의 성황을 일우어섯다 이욱고 멀리륙십리나되는 경주(慶州)디방을위시하야부근각군에서 모혀든단원들은 몬저각공장을견학하고 혀대가 과연과계문명이라는것을 절실히늣겨 만흔깨다름과 암사(暗示)를 어든후 다시깃분얼골로 오후네시십분경에 해산된바 최종으로는형

이잇서 만흔흥미가잇섯스며 특별히 이여흥에대하야 시내유수한상뎜에서 긔증이잇섯는바 씨명은아래와갓더라(대구)

朴順商會▲朴英秀▲金光洋襪所▲大邱皮革商會▲大菊商會▲海山商店▲靑邱洋靴店▲日光商會▲趙秉高▲大昌帽子店▲和平堂▲茂英堂▲滙東書館▲海東圖

公普校에窃盜

생도들의책갑을 훔처가지고도주

양양공립보통학교 (襄陽公立普通學校)에는 지난십구일밤에 도가침입하야 학생의 교과서주문바든돈 이십여원을 절취하여가지고 도망하얏다는데 이는반드시 그내용을 잘알아두엇던범인의 소위인것갓다고하며 유리창우로 뛰어넘어와서 책상을소도도 꽉근혼적까지 잇슴으로방금경찰서원은 엄밀 됴사중이라더라(양양)

取調中自殺企圖

낫분짓을하여노코서는 량심으로뉘우처그리해

城)북본뎡삼백륙십번디 림택일명채현(林澤一名蔡鉉)(三O)이 자긔딸명옥(明玉)(一四)의 시내한성은행지뎜에 일 권의 더금이잇는 것을긔 의도장을 복사(複寫)하 하야가지고 지난이십일 을날을 리용하야 시내남에서 장사하는림도상(林 이라는사람에게가서금히 최원돈이잇다고 교묘히 외여서 오날이마츰 일이잇는데 이처럼 더금한돈 사백오십원반속여달라고 도 찻지를못하니 이통장 동장을 원부와 대조하야본 곤경에는 위조임이판명되 개성서로 뎐화를걸어서 는 죄상이드러나며 즉각 호되여 경찰서로 드러가 바들째 서원의눈파는틈 량심에뉘우침이 잇섯든 업겟지만 그째는 마칩그 일요일이라 대조하야 이 장부를 다른부슨사건 하고자 뒤지고 잇든중이 달라고 하얏는데 보통 지고 즉시한성은행 으로 주마하고 그더금통장을 하야본후에 가부간 결뎡 더금이덕화한 여부는한 통장을 내여보임으로 림

지 별안간 자긔주머니속에잇는단도를 쓰내서자긔 목을찔렷든바즉시로 발각되야 응급수술을바더생명에는 아모관계가 업다하며방금취됴중에잇다더라 (개성)

基礎鞏固할 雄基共榮組合

새일문을만히맛나 그권도가순탄하다

긔미운동의 뒤를니어 물산장려의소리가전조선처처에서터저나오게되매이풍조에 자극을 바든당디유지김도연(金道淵)문병호(文秉浩)죄덕환(崔德煥)씨외십수명의발긔로경흥(慶興)디방의뜻잇는인사 백여명을 망다하야가지고거금사년전에공동구입판매의목덕으로공존공영 (共存共榮)의 긔치(共榮組)에 공동상의 공영조합 (共榮組合)인데 처음에는조선에서 생산되는토산만을구입판매하엿섯스나그것만으로 유지가 끈난함으로부득이잡화(雜貨)까지겸하야가지고조합장문병호(文秉浩)씨와총무 최덕환 (崔德煥)씨의수완은두도사업이날로진흥되야바야흐로 조선인상업계에우이(牛耳)를잡게되얏슬째에일부조합원사히에서는 엇더한 감정으로던지 창립당의의(意義)를 몰각하고 해산설(解散說)을 주장하게되야 한참분규 상태에잇서조합의 운명은 이야말로풍전등화가터 위태한경우에일으렷더니 창립된초지 (初志)를고집 (固執)하고 해산에극히반대하는조합원들도 전지안어드되여 승리는 해산치말자는측에 도라가게됨에 해산을주장하

면 일부조합원들은 탈퇴까지하는동으로 적지안은 동요가생기엿섯스나 그대로 무준히계속하다가 거번리사로잇던문병호(文秉浩)씨가 사임하게됨에신임리사로류종학(柳宗學)씨가피선되야사업촉진행중인데 씨는사계(斯界)에조예(造詣)가깁흔이임으로 금후불만한 활동이잇스리라고、일반은 긔대하는모양이며 또한씨도 취임이후로 장소(場所)를 이뎐하고 영업방침을경장(更張)하는등으로대대뎍활동을 개시하엿슴에 웅긔에서조선인상업단데라고는다만한아뿐인 이공영조합은 그동안모진바람과 구진비에 부대겨오다 가이제야 비로소긔반이 튼튼하게되리라고 일반은무한히 경하하는바이라는데、지금의 조합장은김도연(金道淵)씨라더라(웅긔)

日本鹿兒島에서 家屋百餘棟燒失

이십륙일에불이나서 한동리백여호를소실

이십륙일 오전열시경에 큰눈과함의부터닥치는 렬풍중에 일본록아도현증어군대긔촌 (鹿兒島縣噌唹郡大崎村) 우편국에서불이일어나서 불길은 어느듯사방으로떠커저일백삼십동(棟)이소실되여 동부락민들은 즉시 림시촌민대회를개최하고리재민을구호중이더라(록아도뎐보)

굴을버서 나서달빗을 의지하야자긔잇든곳을 향하야 몰아 왓는데오전다섯시경에야 그이튼날일반은 그자의소위를 듯고비난한다더라(안주)

自己의안해를 改嫁를보내라고

그럴듯한말로교묘히속여 썬남자와한방에잡어너허

자긔의 처를개가식히라든 남자가잇섯다 그는평안남도 안주군룡화면마산리(平南安州郡龍花面馬山里) 김모(金某)는륙칠년전에 작첩을하여가지고 본처를초개가티 보든바안해가엇지나미웁던지 재작년십일월경에 안해의가장을전부깨트려버리고그것도만족치못하여든지먹고잇는장독까지깨트려버리고첩과가티금수강산인 평양(平壤)으로 나아가일년동안단뭄을우다가엇지되엿는지 작년십이월경에 첩을다리고 별치업시자긔의 본처의집으로도라와서가티살다 가돌연히또자긔의본처를배반하게되엿다그리하야 본처를다른곳에

개가식히 라고첩의딸당년칠세된소녀를시집보낸다는리유로한돈를내여그근처에사는한씨(韓氏)를 중매로하여가지고 본처에게 중매와함게 간선을가라고하야 숙천(肅川)으로 보내엿다 그리하야숙천(肅川)모의집에가서 매파는석양이되자 어데

로 종적을감추엇슴으로 권긔집 모의처는 자긔의남편에게 속은줄도 몰으로 그곳에서사위간선할모양으로 그집에 투숙코자하엿는데 오후십이시경에 백발령감이 자긔잇는방에 들어오면서 오날부터는 나와살림을할러인즉 그만자자고함으로놀다서나 는살림을 하려온사람이 아니고 사위간선하려왓다고 하야 그마

嚴、黃兩人의 踪跡杳然

아무리차지려하나 도더히알길이업다

긔보＝ 한동안 세상사람의이목을놀나라하든 원산 형무소 (元山刑務所) 수용중의상해림시정부원 엄대섭(嚴泰燮)이가 동형무소간수 왕종률(黃鐘律)과 더부러 서로 손을잡고도주한지이미십수일이 되엿스나 아즉까지그행방을 찻지못하야 형무소와

毆打常習의 西面校朴訓導

일반학부형간에는 비난이첨첨놉하가

경흥군서면 공립보통학교(慶興郡西面公立普通學校) 이학년담임훈도 박모(朴某)는 이전부터학교에서 아동(兒童)들을 구타하는일이 빈번하야 학부형의적지안은 불평을일으켜 오든바지난 이월에는 긔원절(紀元節)에 등교치안흔 아동들을모조리불러세우고 란타한날이 잇다하며 또이달십일경에는 수업료(授業料)를 납부(納付)치안는다고 십여명아동을 무수히구타 하얏다는데 구타당한아동은 굴포(屈浦)서수라(西水羅)며압동(鶴岩洞)등디에서 통학하는학생들이라는바 그의 부형들은 이러한 박훈도의폭행에대하야 비난이만흘뿐 아니라그러한선생에게 자녀를 보낼수업스니 퇴학이라도 시키겟다는학부형까지잇다 더라(웅긔)

新幕에怪火?

한집에서두차례나

경의선신막역전 (京義線新幕驛前)일백이십사번디 리시배(李時培)의집에서 지난이십오일오전십이시가량하야불이낫섯는데 그쌔에서풍이몹시불어이웃집까지도 위험하엿스나 소방조의극력진화로 큰일에는이르지 안엇다는바 이집은 그전에도불이낫스나 원인을자세히 아지못하든

無理한道路賦役

일등도로에주민부역으로 일반의비난날로놉하저

충남연기군조치원 (燕岐郡鳥致院)으로부터공주(公州)까지의도로리수가 사십오리나 되는대원일은 일등도로로 편입되엿고월반은 이등도로로 편입되여잇승에도 불구하고요새 도당국에서는면사서는 군으로 군당국에서는면사무소로 강경히 독축하야권긔도로에매호에 자갈(砂礫)이 십이상자(石油箱)식 부담식히여 쌀게함으로 먹을것이업서서 본얼굴을갓지못한 촌백성들은 도당국과 군당국의 무리한도로부역을비난하면서도 아니하지 못하고자갈채취에큰고통이라는데 그나마 자갈을채취할곳이 업서서십리나되는고복리(高福里)에서서면(西面)사무소 부근까지 억개가 부러지도록 채취운반하는것은 목석이아니고는 볼수업는상태이라더라(조치원)

李世羲)씨를 구타죄 (毆打罪)로송파경찰관주재소 (松坡警官駐在所)에 고소되엿다는데 그원인을들은즉 지난 이십이일오후열시경에 권긔 윤씨와그친구한사람이 엇던 주뎜에서술을먹고 취하야 금융조합으로놀너가서 리씨를맛나 술을사다가먹고놀다가 윤씨와 리씨의 두사람사이에 언쟁이생겨서 말다툼하다가 나중에는 리씨가 윤씨의코를 주먹으로때려 鼻血이 낭자하엿승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른편눈을때려 일시는본도까지되엿다는데 피해자 윤씨는 약십일간치료를 바더야 되겟으며진단서를마러가지고 당디주재소에 고소를케한것이라더라(송파)

酒朋을毆打한 金組理事被訴

피해자는약십일간 치료를바더야된다

광주군중대면석촌리 (廣州郡中垈面石村里) 에사는윤공섭 (尹公燮) 씨는송파금융조합 (松坡金融組合) 리사 리세긔(理事

三千名餞送中에 監獄으로간希臘女子

쩔분치마입어다고집혀서 그동지들이감옥까지전송

커번에 희랍(希臘)집정「광가도스」장군은풍긔에대한 법령을발하야 부인들의 치마가너무쩔분것을 엄금하엿는데 이번에「아데네」시에서엇더한이칼다녀자한명이 전긔법령을위반하고매우짤분치마를입엇다가일일간구류처분을바덧다는소식을접한삼천여명의쎨분치마찬성자들은그를감옥까지전송하엿다더라(나우엔던보)

電車自殺未遂한 ◇可憐한平壤靑年

안해는해산을하고누엇스나 국밥지어먹일쌀조차업서서

지난이십사일 오후여덜시경에 평양부행뎡(平壤府幸町)경관파출소압헤서어던청년한명이뎐차에치여자살코자하다 가경관에게발각되얏다는데 그는 평양부천뎡(泉町)십륙번디일본인작도죽이랑(作滿竹一郞)집고용을하는남뎡(南町)칠번디에사는뎡석룡(鄭錫龍)(二六)으로매월십칠원식을바더가지고 삽사식구가 그날그날의 생활을하여오든바 자긔의처가 몃칠전에 아이를나앗스나산모를 먹일쌀한홉이 업슴을비관하고 그와가티 자살을하라든것이라더라(평양)

有夫女의 飮毒自殺

정부와살수업슴을 깨닷고죽은것이다

검시케하고 당일오전으로 매장하엿다는데 그결이의 주소성명은 됴사중이며 가진물품은아무것도업섯다는바 죽은인은원어려죽은듯하다더라(사리원)

평북귀성군 텬마면동암동(平北龜城郡天摩面東岩洞)허명준(許明俊)의처권소사(金小姐)는 지난팔월 오후여덜시경에 간수를먹고 무참히죽엇다는데 이제그자세한 내용을듯건대 권긔권소처는 귀성군노동면면소(龜城郡芦洞面面所)서긔로 재근하는원룡식(元龍植)과쏠가튼사랑을주며지나오던중 일삭전에 권긔권소처는 돌연히집을떠나 부지거처가 되엿슴으로 남편되는허명준이가 종적을알고저 탐문한결과 귀성군노동면중방동(中方里)김모(金某)의집에서 간부원룡식과 살림을한다함으로 남편허명준은 또차가서 다려왓든바김소처는간부로더부러동거치못하게됨을 비관하고 드듸어자살

沙里院에 乞人凍死

즉시매장하얏다고

황해도 봉산군사리원면서리(黃海道鳳山郡沙里院面西里)

沙里院에火災

손해는오십원이다고

경의선 사리원북리(京義線沙里院北里)

公州利仁校全燒

宿直小使行方不明 혹은타죽은듯도하다고 原因과損害는方今調査中

지난이십오일 오후두시경에 충남공주군 목동면 리인공립보통학교(公州郡木洞面利仁公立普通學校)에 불이나서전소(全燒)가되엿다는데, 숙직하던소사(小使)한명이불에타서 죽엇는지종적이업다하며 학교안에잇는 물품과서류도 한아도 차저낸것이업다하며 당교교장도 마침군령에갓다가 지난이십륙일 오전칠시경에야 이소식을듯고 군직원일동과가티 현장에나가 방금발화원인과 손해를 됴사중이라는바 그학교는금춘에 새도건축한교실도잇다더라(공주)

(黃鳳吉)의집에서지난이십사일 오후다섯시반가량하야불이낫섯는데그쌔에서풍이심히불어쌔라 그부근에는 우물이잇기는 잇섯스나 수원(水源)이 업서서사리원소방대에서극력진화하엿다는 바그불난원인은옷방세(貰)로잇는집어린애가부모도업는새에 억에나가아궁이에불을때기다가 낸것이라하며 손해액은 약오십원가량이라는바 사리원에서는련일 불이이러나서 일반은매우주의치안호면아니되리라더라

印度靑年又一名 倘州에서忠州

본사지국의안내로

자던거로 세계를 한바퀴돌은

인도(印度)청년 에 이에 一김군이 메구를 떠나서 물당하다가증도 선산군 면에서자고 지난 이십 후 한시경에 상주에 도착 다는데 본사상주 지국긔자 련씨가 읍(邑) 밧게까지 나 내한후 오후세시경에는 본 주지국장 뎡긔섭씨안내로 새건비회를관람하고그는가 를조선에서는 오날까처음 이와가티 하느냐고 놀으 경을 사진박어가지고 오후 여덜시경에는 서 을 열고거본사상주지국원 이다 과회를 여럿는데 는 특히조선음식으로 머 스며 그청년은조선에 데 맛이쏘조타고 하며 조선음식은 처음먹어 보 려편에서자고 하며잡 곱시에 뎡지국장의 자전 으로충주로향하얏더라(상

只沙私立學校 盟休解決在邇

전북임실군지사면 (全北 只沙面)사립학교맹휴사거 學校盟休事件)은 긔보한 와생도전부는보습과(補習 설치 하기전에는 등회할 고주장함으로 학교당국상 책을 고려하든중 지난십 동교내에서 면민대회 (會)와지사청년림시총회(年臨時總會)를 개최하고 방책을 토의(討議)한결과 동(面長崔圭東)씨와청년 문긔(李文基)씨가차례로 와가티 결의하엿는데 면 동(面長崔圭東)씨와청 서 향하얏에대한 열변(熱 잇슨다음 오후다섯시반에 하엿다더라(임실)

◇決 議

一、校舍增築은靑年會의

二、補習科에對한備品費

三、敎員報酬는面民의負

三千浦서逮捕된 詐欺輩兩名

삼천팔백원을

사긔하야남

경상남도 삼천포동리(慶 浦東里)에거주하는김정언 彦)(三)과서금리(西錦里 조(姜基祚)(三)두명는지 일이월부터 동서리김홍윤 允)과동림리 안모(東林里 두사람이 자긔의토디를 산은행에 더당설정케하고 을차용할아드든바 케반수속 아니되여 젼긔 정언과긔 람에게일임(一任)을하야 람은디가(地價)이상의금 구하기위하야 타인의토디 안모의토디라고거짓감정 고금삼천팔백원을사긔하 하던중 마산식산은행에서 실이안인일을알고 은행원이 포까지 와서전긔 두사긔 자사실 아님을 말하즉두 는 말하되 불신한 점이 상당한 재산가를 보증시 하고은행원을 다리고 이 가다가 중도에서 피하야 감추엇승으로 은행원은 경찰당국에고발 하야 지 이일에 테포하야 본서로 엿다더라(삼천포)

휘파람

▲청주에잇는 립보통학교 (普)교장은 생 안이불온하다 을식이엿다고 장을경찰서측 보냇스면무방 ▲원주(原州)엇던자는 외간통한자를죽이고돈삼 강탈하얏다한다 ▲게집모 도아닌자! ▲대동(大同) 던자는외조모더러돈을달 도안준다고 외가의 공을 가감추운것을 이웃사람이 하고 그자의외조모에게 야 외조모의욕증을 들엇 쩟물을먹고 자살을하한 섯다 ▲그자는 금수보다 역이는자리회가?